

올 학교체육 활성화에 870억 투자

도교육청, 체육교육과정·학교스포츠클럽 등에 지원 학생 신체활동 참여 확대... 활기찬 학교 분위기 조성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해 올해 870억의 예산을 편성, 체육교육과정·학교스포츠클럽·육성종목운영·체육시설 등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는 주요 행사 및 대회 개최 종목을 대폭 늘려 학생들의 다양한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건강체력 증진 및 활기찬 학교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2년 대비 2023년 주요 행사 및 대회가 11개 종목 증가했다. 특히 기존 하계종목 위주의 대회에서 스키·스노보드 등 동계종목을 추가해 우수선수 발굴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위주의 대회 종목에서 초등학교

1~3학년도 참여할 수 있는 등산 파크골프, 한궁 종목을 개최해 학생들의 신체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했다. 전라북도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종목도 기존 16개 종목에서 18종목으로 확대 개최할 예정이다.

더불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활동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올해 학교운동장(외개소), 소규모체육시설(77개소), 육성종목 훈련장(8개소)을 조성하고, 스포츠강사 지원과, 체육(전담)교사 대상 연수도 실시했다.

학교스포츠클럽 활동비를 지원하면서 학교스포츠클럽 등록률도 증가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침체돼 있는 학교 체육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



전북도교육청은 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해 올해 870억의 예산을 편성, 체육교육과정·학교스포츠클럽·육성종목운영·체육시설 등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리에 귀 기울이고 학생들이 다양한 기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신체활동을 통해 건강한 몸과 정신을 말했다 /정은성 기자

“도의회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도교육청, 김병용 의회협력담당 사무관 임용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공개모집을 통해 김병용 의회협력담당 사무관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8월 공개모집을 실시,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시험을 거쳐 김병용 의회협력담당 사무관을 9월 4일자로 임용했다.

의회협력담당 사무관은 도의회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사항과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교육지원사업 조정·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한편 김병용 의회협력담당 사무관은 전북대학교를 졸업한 지역 출신 인재로, 전북대학교 언어교육원 초빙교수 및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했다.

박성현 총무과장은 “협력업무 경험이 풍부한 의회협력담당 사



전북도교육청은 공개모집을 통해 김병용 의회협력담당 사무관(사진)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무관 임용으로 도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소통과 협치의 전북교육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학생중심성장 리더 특강

전주교대, 국립대 육성사업 일환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준)는 지난 1일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일환으로 학생중심성장 리더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강은 '인공지능시대 미래 교육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이자 미래교육연구소장인 정재영 강사가 강연자로 나섰다.

특강 내용은 챗GPT시대 미래 교육의 방향,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발달의 중요성, 인공지능을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통찰력, 학교 중심의 인공지능 교육 활성화 방안, 교육분야에서의 혁신과 발전을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는데 초점을 맞췄다. /정은성 기자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집회

서울 서이초에서 극단 선택으로 사망한 A교사의 49재인 4일 전북도교육청 광장에서도 추모집회가 진행되고 있다.

“환자·가족이 돌봄 주체로 설 수 있도록 개선”

전주대 지역혁신센터 지역문제해결플랫폼 '돌봄리빙랩네트워크 포럼@전주' 성료

전주대학교 지역혁신센터 전북지역 문제해결플랫폼은 지난달 30일 돌봄리빙랩네트워크 포럼@전주"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포럼은 올해 전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 실행의제로 선정된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건강 취약계층의 만성질환 탈출로 여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의제의 첫 행보로, 전북지역 문제해결플랫폼,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돌봄리빙랩네트워크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배시민학회, (주)한국에이치, 전주대 문화산업연구소가 주관했다.

이날 건강과 돌봄시스템 전환 활동 경험을 공유하고, 시민을 돌봄의 주체로 성장시켜 지역 돌봄공동체를 전문 조직과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실천 방안을 논의했다.

첫번째 발제를 맡은 한동승 공동집행위원장(전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시민과 함께 지역문제를 해결하다'란 제목으로 전북 돌봄네트워크 활동과 협력 사례를 소개하며, 다양한 사회적신조직들이 협업하는 '행복한 도시, 걱정 없는 도시'를 위한 리빙랩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주대학교 지역혁신센터 전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지난달 30일 '돌봄리빙랩네트워크 포럼@전주'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어 유혜숙 원장은 선배 시민, 공동체를 돌보다란 제목으로 "노인을 돌봄의 대상에서 돌봄의 주체인 선배 시민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선배 시민이 후배 시민·동료·지역공동체의 돌봄 참여를 제안했다.

또 고선미 전무이사(전주의료복지사회)는 건강지킴이와 함께하는 전주형 지역사회통합돌봄"이란 주제로 전주에서 추진 중인 통합돌봄 서포터즈 건강지킴이 현황을 소개하며, 맞춤형 보건의로·복지 돌봄 통합서비스 지원 체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심재신 이사(내마음은콩밭협동조합)는 '환자와 가족, 돌봄의 주체가 되다'란 주제로 질환별 지원기관과 당사자·가족을 연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사례를 소개하며, 환자와 가족이 돌봄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전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지난달 8월 출범, 전북도 등 57개 기관과 도민들이 힘을 모아 17개 의제를 실행했다. 올해는 전북도민을 대상으로 지역문제를 공모해 접수된 총 237개의 제안 중 지역성, 시의성, 공공성, 창의성, 해결 가능성, 주민 체감성, 자연연계 가능성 등을 고려해 14건의 최종 실행 의제를 선정했다. /정은성 기자

군산대 새만금창의융합센터, 생활과학교실 2기 운영

국립군산대학교 새만금창의융합센터(센터장 유수창)는 지난 6월~8월 운영된 '2023년 생활과학교실 2기'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생활과학교실 2기는 지자체(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서천군)별 창의과학교실, 나눔과학교실 등 42개소에서 주 1회, 개소 당 10회, 총 420회 교육을 진행하였다.

특히, 이번 기수는 자연현상을 관찰하고 탐구할 수 있는 기초과학분야의 내용을 주요 주제로 구성하고 운영되었다. 교육내용 중 편광미술, 발열체를 이용한 식품조리, 공중부양행이 학생들이 큰 호응을 얻었다.

그 밖의 다양한 교육 일정 및 세부 프로그램 내용은 국립군산대학교 생활과학교실 네이버 카페(http://cafe.naver.com/asscienceclass) 또는 군산대 생활과학교실(063-469-465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생활과학교실은 과학기술진흥기금 및 복권기금 재원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성과물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발전과 사회적 가치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군산=김광민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환자 예후 인공지능 기술 활용 연구 검토... 진단 정확성 확인

전주대 김미희 교수, SSCI 상위 0.5% 이내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

전주대학교 김미희(간호학과) 교수의 영어 논문이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138권에 실렸다고 밝혔다.

이 저널은 간호학 분야 125개 중 1위로, 2022년 기준 인용지수(IF)는 8.1이며, JCR 랭킹 상위 0.4%인 최우수 학술지다.

이에 따르면 이번에 게재된 연구는 문은 중환자실 환자의 예후(중환자실 입원 기간 연장, 재입원, 사망)를 예측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검토해 예측 모델의 진단 정확성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병원에서 작성하는 전자



의무기록(EMR) 중 간호기록이 인공지능 기반 예측 모델에서 중요한 데이터로 활용됨을 확인했다. 이에 환자 상태에 대한 간호사의 사정 진단, 중재, 평가가 반영된 간호데이터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기반 예측 모델 개발을 제안했다.

김미희 교수는 "인공지능(AI) 기반 예측 모델에서 환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의 관찰, 임상적 판단, 간호 활동이 반영된 간호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현장에서 간호사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간호학과 학생들을 포함한 간호사들에게 자신들의 역할에 대해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연구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대기압 플라즈마로 친환경 살균 아이디어 제시 '호평'

전북대 최민석 대학원생 생활혁신 아이디어 '대상'

전북대학교 최민석 대학원생(플라즈마 및 양자빔융합공학 석사과정)이 최근 캠퍼스종합기술원에서 열린 2023 도전! 생활혁신 아이디어 리그에서 약품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살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 대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아이디어 제품에 관심 있는 대학생 및 일반인 17개 팀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대회에서 최민석 대학원생은 '대기압 플라즈마를 이용한 채소 및 식용량 살균'이라는 아이디어를 냈다.

이 아이디어는 매번 발생하는 식중독의 원인인 채소(쌈이나 샐러드용)와 식용량의 세균(살모넬라, 포도상구균, 대장균 등)을 대기압 플라즈마를 이용해 친환경적으로 살균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안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최 대학원생은 채소나 식용량의 세균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약품이 인체에 해롭고, 축적이 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 수행된 성과물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발전과 사회적 가치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최민석 대학원생은 "대학에서 연구



전북대학교 최민석 대학원생이 최근 캠퍼스종합기술원에서 열린 '2023 도전! 생활혁신 아이디어 리그'에서 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살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 대상을 수상했다.

경험을 생활밀착형 아이디어로 접목해 세상을 보다 이롭게 할 수 있다는 것에 성취감을 느낀다"면서 "이번 수상에 그치지 않고 이번 아이디어가 생활 속에 접목돼 제품화될 수 있도록 연구에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는 정예준(무역학과), 정재권(토목공학과) 학생도 우수 아이디어로 장려상을 받았다. /정은성 기자